

## 2019년 노동절 :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전진하자!

공동성명, 29.04.2019, [www.thecommunists.net](http://www.thecommunists.net)

2019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알제리, 수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카시미르, 짐바브웨, 프랑스,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나라들에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자 인민들에게 혁명적 인사를 보낸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이 조직되어 자본주의체제를 타도하고 세계 노동자·농민 공화국 연방을 만들어낼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자유와 정의를 위한 투쟁도 성공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해방 투쟁은 국제주의 강령에 기초해야 하며, 모든 제국주의 대국들(미·중·EU·러·일)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국주의 국가들(남한 같은)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혁명적 지도력 결여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 “현 시기 혁명가연합 6대정강” 문서 (아래 첨부)에 대한 동의 속에서 — 혁명적 세계당 창건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서명 조직

*Revolutionary Communist International Tendency (Pakistan, Sri Lanka, Bangladesh, Israel/Occupied Palestine, Yemen, Brazil, Mexico, Nigeria, Zambia, Kenya, Russia, Britain, Germany and Austria),*  
[www.thecommunists.net](http://www.thecommunists.net)

남한의 혁명적 공산주의자들 (South Korea),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51945&page=1>

*Революционные коммунисты (Russia),* <https://vk.com/rcit1917>

*Zimbabwe Solidarity Brigades*

*Courant des Jeunes Penseurs Congolais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https://cogitordc.wordpress.com/>

\*\*\*\*\*

## 현 시기 혁명가연합 6대정강

### 혁명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동맹 (RCIT)이 드리는 제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모순이 격화하고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다. 자본주의가 쇠퇴 사멸해감에 따라 자본가 강도들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에 대한 반동적 공세를 강화하고 환경을 더욱 더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를 늘리려 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에 처해 있는 가운데 현재 격화하고 있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가 3차 제국주의 세계전쟁의 위험을 부르고 있다. 인류는 “사회주의냐, 석기시대냐!”에 처해 있다.

이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주의를 위한 조직된 투쟁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은 사회주의 미래를 위한 국제적 투쟁에 헌신할 당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혁명가들이 원칙 있는 통합의 기초를 놓고, 그리하여 보다 강한 힘으로 새로운 혁명적 세계당 창건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작업에 즉각 착수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한 당의 창건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은 세계 계급투쟁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이다. **혁명적 공산주의 국제 동맹 (RCIT)**은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한 동의가 현 단계의 그러한 강령적 기초라고 본다.

#### 1) 제국주의 대국들 — 미국 · 중국 · EU · 일본 · 러시아 — 간 격화하고 있는 패권쟁투

미국 · 일본 · EU만이 아니라 신흥 대국 중국과 러시아도 제국주의임을 인정할 때 *만*이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를 추동하는 모순을 이해하고 올바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오직 그러한 기초 위에서만 이 문제에 관한 유일하게 올바른 반제국주의 강령에 이를 수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혁명적 패전주의*만이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일관된 노동자계급 투쟁의 전략·전술을 담보한다. 혁명가들은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슬로건 하에 제국주의 간 대립·총돌에서 *어느 제국주의 국가도* 지지하길 거부한다.

인도는 제국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제국주의 중국과의 분쟁에 돌입할 경우에는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에 대해서도 지지해선 안 되며, 동일하게 “*주적은 국내에 있다!*” 슬로건 하에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들 강대국들의 반동적 · 제국주의적 성격을 바로 보지 못하면, 일관된 반제국주의, 즉 맑스주의 노선을 취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느 한 제국주의 진영을 “차악”이라며 지지하는 것으로 되고 말 것이다.

#### 2) 제국주의 반대 · 피억압 인민의 해방을 위한 일관된 투쟁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국가 및 그들 대리인이 피억압 인민을 대표하는 세력과의 대립 · 총돌 시에 전자의 *패배*와 후자의 *군사적 승리*를 내건다. 한편 이와 동시에, 피억압 인민의 비(非)혁명적 지도부(예를 들어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자, 민족주의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은 제국주의 국가 내의 분쟁(예를 들어, 러시아 내 체첸 인민이나 중국 내 동 투르케스탄/위구르 인민 같은 피억압 민족에 대한 억압)에서나, 국외에서의 전쟁(예를 들어 북한, 아프간, 시리아, 말리, 소말리아 등에 대한 제국주의의 도발·침략)에서나 모두 해당된다. 이러한 입장은 남반구 나라들에서만 아니라, 구

제국주의 국가들 내 민족 억압 및 차별(예를 들어 미국 내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제국주의 스페인 국가에 반대하는 카탈로니아의 독립을 위한 투쟁 등)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국경 개방과 민족 소수자 및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예를 들어 시민권, 언어, 동등한 임금)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나아가 혁명가들은 제국주의 진영 간의 대립 충돌에서 어느 쪽에도 지지를 보내길 거부한다(예를 들어 브렉시트 대 EU, 클린턴 대 트럼프).

억압에 대항하는 인민 투쟁을, 이 투쟁의 지도부가 문제라는 핑계로 지지하길 거부하는 것은 (현 시기에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의) 계급투쟁을 저버리는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계급 · 피억압 인민의 진영을 이탈하는 것이다.

### 3)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반동 독재 · 제국주의 ·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혁명적 투쟁의 계속

팔레스타인, 튀니지, 이란, 시리아, 이집트, 예멘, 수단 같은 나라들에서 전개된 대중적 인민 항쟁들은 2008년 대공황 이후 개시된 새로운 역사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계급투쟁의 진전이다. 혁명적 지도부가 결여된 점을 전제할 때 대중이 일련의 혹독한 패배 — 2013년 7월 이집트에서 장군 알 시시의 쿠데타나, 시리아에서 대통령 아사드와 그의 제국주의 후견인에 의한 시리아 인민의 학살 같은 — 를 겪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혁명적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 점은 팔레스타인, 시리아, 예멘, 이집트 등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인민 저항에서만 아니라, 이 저항이 튀니지, 이란, 수단, 모로코 같은 나라들로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트럼프의 결정으로 촉발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국제적 대중운동은 제국주의 열강과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국가에 반대하여 단일한 팔레스타인 국가(“자유로운 붉은 팔레스타인”) 창설을 내건 혁명적 투쟁의 새 장을 열고 있다. 튀니지와 이란에서 자본가 정권에 대항하는 자연발생적인 인민 항쟁은 중동에서의 혁명적 물결이 부활하여 비(非)아랍 나라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혁명적 세력은 독재와 반동 세력에 대항하는 이들 인민 투쟁에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들 투쟁의 비혁명적 지도부(예를 들어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지도 보내지 않으면서 말이다.

2011년 이래 진행되고 있는 아랍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또는 아랍 혁명은 이미 끝났다, 패배했다고 선언하는 “사회주의자들”은 단지 말로만의 사회주의자일 뿐, 실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혁명가들은 지역 강국(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등) 간의 반동적 전쟁에 반대한다. 혁명가들은 해당 전쟁의 구체적 성격 및 그 정치적 배경과 그 전쟁에서 제국주의 열강(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전술 결정을 할 것이다.

### 4)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

혁명가들은 계급의 적을 식별하고 그 적에 대항하여 투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이해에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모든 반동적 독재 및 권위주의적인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들(시리아, 토고,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모든 형태의 민족·인종 억압(라틴아메리카의 토착민, 미얀마의 로힝야족, 리비아의 아프리카 노예 등), 모든 쿠데타(2013년 이집트, 2014년 태국, 2016년 브라질 등), 모든 권위주의적 공격(2015년 프랑스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여 일관되게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여 일관되게 투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모두 노동자계급의 배반자들이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피의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

#### 5) 모든 대중투쟁에서 통일전선 전술의 적용

혁명가들은 대중투쟁에 참가하는 데서 그 투쟁의 지도부가 비혁명적이라는 것을 구실로 삼아 참가하길 거부하는 모든 형태의 종파주의에 반대한다. 혁명가들은 개량주의 또는 인민주의 세력이 이끄는 노동자 · 인민의 투쟁(노동조합, 농민 및 도시빈민 대중조직이 이끄는 투쟁, 그리고 정당 및 정당 주도 대중조직, 예를 들어 브라질의 PT, CUT, MST, 아르헨티나의 CGT, CTA, FIT, 이집트의 이슬람주의자, 시리아의 반군, 남아공의 EFF, 2015년 이전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바스크, 카탈로니아 민족주의자 등이 이끄는 대중투쟁)에서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한다. 이러한 전술 적용은 모든 형태의 인민전선주의 및 소부르주아 인민주의에 반대하는 일관된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또 노동자 · 피억압 인민을 이들 비혁명적 지도부와 단절시켜내서 독립적인 혁명적 노동자당 결성을 밀어가는 투쟁과도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투쟁에서 통일전선 전술을 적용하지 못하면, 이들 투쟁에 대한 지지를 아무 구체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 추상적 성명으로 대신하는 오류로 빠져들 뿐이다.

#### 6) 지금 혁명적 세계당 건설에 나서자!

지배계급의 반동 공세를 격퇴하고 노동자계급 · 피억압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는 투쟁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과 결합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이 권력을 잡고 자본가계급을 타도, 수탈하여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여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해방을 위한 모든 대중투쟁은 혁명당이 그 투쟁을 이끌지 않으면 결국은 패배로 끝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한 당은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의 가장 정치적으로 의식적이고 헌신적인 투사들을 조직해야 하며, 어떠한 관료적 타락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일국 중심주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적 당으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적 세계당을 만들고자 총심으로 분투하는 모든 조직과 활동가들에게 이러한 강령적 기초 위에서 힘을 합칠 것을 호소한다. 구체적으로 RCIT는 혁명가들에게 *공동연락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다. 혁명적 세계당 결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논의할 *국제회의*를 정치적으로 준비하고 조직하기 위한 공동연락위원회다. RCIT는 이 같은 과제와 전망을 공유하는 모든 세력과 가능한 한 가장 긴밀한 협력과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